



청 소 년 도 서 관 작 공

#서울 은평구 #임대로 지원

아이들을 만나 꿈을 키워가는 곳

‘작공’, 얼핏 이름을 들으면 전설적인 무림의 한 종파쯤으로 들리지만 작명 사유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추운 아이들을 처음 만난 곳이 마을의 ‘작은 공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복되는 우연한 마주침에서 작공은 탄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공간’, ‘작은 공연장’, ‘작은 작업장’, 등 여러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작지만 큰 꿈의 공작소’로 불러주실 때에는 모른 척 눈감아 드린답니다.

인생을 배우는 곳

별 볼일 있는 청소년 도서관 ‘작공’은 사연 많고 매력적인 뜨거운 청춘들의 아지트로 밥 먹는 도서관, 어른 친구가 있는 도서관, 사랑과 우정을 함께 경험하는 인생 배움터입니다. 인생학교라고 하고 싶었지만 청춘들의 향의가 빗발쳐 어쩔 수 없이 살짝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청소년도서관 작공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작공’은 마을 사람들의 후원으로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 해는 버틸 수 있을까, 이 은밀한 걱정이 한 두 차례 연례행사로 찾아 왔다 매년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해결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초, 작공은 임대료 부담을 줄여야만 상대적인 여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고심 끝에 공간 이전을 결정하고 거사를 이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공 청춘들의 발칙한 상상력과 자유로운 활동, 그리고 식구가 되어 함께 먹는 밥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긴급지원119를 만나게 되어 ‘작공’은 정든 이 곳에서 ‘작공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5개월의 임대료를 지원 받게 되자 ‘작공’ 식구들은 **앞던 이를 뽑은 느낌**이었습니다. 공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자 ‘작공’은 마을의 인생 선배들을 모시고 인생특강을 마음 놓고 진행했습니다. 일명 ‘동네형 인생특강’. 동네 삼촌, 동네 언니, 장구치는 동네 형이 오셔서 인생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도서관은 **마을의 인생 나눔터로 변신**하였습니다. 엄마 아빠 없는 특별한 삶의 시작을 한 작공 청소년들이 장구 치는 동네 형에게 인생을 배우던 날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형과 자유롭게 묻고 답하고 또 물으며 자신들만 특별히 불행한 존재라는 생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다른 삶의 시작, 그래서 삶이 다른 의미로 남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어렵풋이나마 예감하는 청소년들의 무언의 끄덕임, 조용한 공감, 울림 있는 응원은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각인되었습니다. ‘작공’ 청춘들은 이 소중한 시간들을 인터뷰 다큐로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명 ‘사람, 사람을 만나다’ 시리즈는 마을 사람들과의 시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겨울, 이사 간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까지 드렸던 터라 마을은 이웃으로 남은 저희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유대가 더 강화되었다할까요? 밥과 인문학, 다양한 이벤트로 마을을 만나고 마을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작공 청소년들의 여성주의 책 동아리 ‘18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사랑을 배우다’, 책이랑 친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시사 즉흥 토크쇼 ‘상부상조 개과천선’, 검정고시 준

비, 고민 나누기 등 공간은 한낱 공간이 아니라 성장의 등지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도서관 작공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2017년 작공의 주요 이용자인 청소년들은 익숙한 그 자리에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에 안도하였습니다. 손을 뺐으면 닿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업그레이드 해 갈 수 있어 열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 청소년들의 공존을 위한 예절 교육을 건의하기도 하셨고, 인생 특강 같은 프로그램에 마음을 더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부탁하기도 하셨으며 작공 청소년들이 마을 청소를 비롯해서 마을에서 받은 사랑을 나뉘 보답할 때면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2018년 작공은 개인 서가와 책 이어달리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책을 통한 마음의 대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스마트폰 중독으로 일방적 문화 수용자 역할만을 해내는 청소년들이 주도적, 자발적으로 자아를 성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람과 세상에 대한 건강하고 독창적인 시선을 갖도록, 자기 삶에 대한 해석력을 갖도록 소소한 음모들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밥과 어른 친구가 있는 도서관으로 청소년들 곁에 한결같은 컬러로 있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힘들은 설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